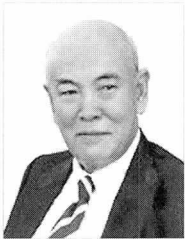


# 다가오는 새시대를 대비하자



농경사회 시절에는 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자기 멋대로 마음 편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접받기도 했다. 그래서 유유자적이란 단어가 매우 품격 있어 보이기도 했다.

현대는 스피드시대라고 하더니 흔히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얘기도 이제는 속도감이 떨어지는 얘기가 됐는가보다. 새내기를 갖 지난 젊은이들조차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느냐는 푸념조의 얘기들을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된다.

지구의 회전이 빨라졌다는 과학적인 얘기가 있었다면 그래서 그러려니 하지만 그런 변화가 없으니 다만 현대인들의 생활이 바빠진대서 생기는 반사적인 느낌 때문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끔은 한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속도는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도 있다. 농경시대는 6000년에서 7000년이었으며, 산업화시대는 산업혁명 후 200년 내지 250년 기간이었으나 소위 IT·정보화시대는 약 50년이 소요됐다는 것을 예시하기도 한다. 다음시대는 무슨 시대가 되며 그 기간은 얼마가 될지는 미래예측을 하는 미래 학자들의 예견을 기다려봐야겠다.

많은 미래 학자들의 다수의 의견은 식량위기를 염려하고 있다.

소위 식량(사료포함)의 무기화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농업·축산과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IMF시대에는 달러(돈)가 없어 사고 싶은 물건을 못 샀지만 돈이 있어도 사고 싶은 식량과 사료를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GMO 및 LMO와 관련된 일이긴 하지만 사료용 면실 구입이 매우 어렵다는 것도 꼼꼼이 음미해볼 일이다.

중국의 덩샤오핑은 생전에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엔 회토류가 있다”고 한말은 유명한 얘기다. 우리에게겐 내세울만한 자원이 없다. 설상가상으로 자원 개발 의지마저 미약했음은 사료문제 해결을 어렵게 했다.

국내 배합사료 연간 생산량은 약 1,500만톤이다. 바꾸어 말하면 연간 1,500만톤의 단미사료가 필요한 것이다. 그중 75%가량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전체 배합사료 구성비 중 옥수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5%다. 대두박까지 포함한다면 곡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에 육박한다.

그러나 에탄올 연료 생산을 위해 상당량의 사료용 옥수수가 연료용으로 이용됨으로서 2006년 톤당 163US\$하던 옥수수가 241US\$, 258US\$에서 11월 들어서면서 303US\$를 넘어서고 있다.

인구대국인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은 소득증대와 함께 육류소비도 증가시켜 곡물수요는 더욱 늘어났다. 설상가상으로 에탄올 연료 이용량 또한 늘어나 전 세계적으로 옥수수, 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일반 물가도 오르는 현상의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양축 농가 경영비의 30~60%를 차지하는 사료는 축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해도 그리 지나친 얘기는 아니다. 전문가들은 곡물가 상승이 식료품 상승을 유발,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지도 모른다고 크게 우려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난국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존자원 및 순환자원의 사료화에 더욱 열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한 사료를 발전시키고 자급도를 높이지 않으면 세계 메이저 곡물 생산국인 식량을 무기화해도 대책이 없게 된다. 자급률이 낮은 우리는 치명적인 피해를 넘어 돈을 주고도 식량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식량파동이 생기면 가장 민감한 쪽은 사료다. 사료파동은 곧 바로 소, 돼지, 닭의 파동이 잇따르게 된다.

매우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곳저곳에 버려지고 있는 수많은 식물성·동물성·광물성 및 기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산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생산을 확대하여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부존자원 활용의 한 방안으로 연간 약 600만톤 정도 발생하는 남은음식물을 사료화 하여 이용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줄일 뿐만 아니라 양축농가의 사료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방법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IMF의 어려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범국민적인 경제 살리기 운동으로 남은음식물사료화 운동이 있었음은 당시 많은 국민들과 정부의 큰 관심사중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아무리 좋은 처방일지라도 사후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와 학계 및 업계 그리고 양축농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국내 부존자원 및 순환자원의 활용으로 국산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생산을 증대시켜야 우리 축산의 앞날이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한다. 주저하는 만큼 우리는 뒤진다는 생각을 잠시도 저버리지 말고 새 시대를 맞이하자.

발행인 겸 편집인 俞 東 濬  
社 團 法 人 韓國單味飼料協會 會長